우리 세상이 소매 속 작은 공간은 아닐까?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㉟ 인삼과를 살리는 관세음보살

그림 · 최주현

인삼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 놓은 현장법사 일행, 붙잡혀 갇히게 되지만 손오공 신통한 술법이 이때 빛을 발한다. 살며시 빠져나와 열심히 도망친다. 청풍 명월 두 사람 한 달 동안 잠들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사이 하늘 세계 강의차 방문했던 진원대선 돌아오고 인삼과 뿌리째 뽑힌 걸 알게 되고 현장법사 일행 도망친 것도 알게 되고 휘익~ 구름을 타고 현장법사 일행을 추격해서 '게 섰거라!'

그런다고 서냐! 그렇지만 진원대선 신통한 술법이 있다. 수리건곤(袖裏乾坤)이라, 소맷자락 속의 세상이란 뜻인가? 휘익~ 소맷자락 한번 쓸어내면 한꺼번에 소맷자락 속으로 휘리릭~ 빨려 들어가 버린다네. 손오공 여의봉으로 두들겨도 소용없고 저팔계 쇠스랑으로 찍어대도 까딱없다. 그저 소맷자락 속에 갇혀서 잡혀오는 것 뿐. 그래서 모두 잡아다 묶어놓고 채찍으로 치려하는데 손오공 가상하게도 스승 생각하는 마음은 사무친다.

'스승님 현장법사는 때리지 마시오! 모두 내가 대신 맞겠소!'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고 모질게 때리는데 손오공 끄떡도 없다. 아무리 쳐도 철면피 신공? 솥에 넣고 삶자니 돌사자와 자기를 슬쩍 바꿔치기~멀쩡한 손 밑바닥이 빠져버리네. 화가 난 진원대선 이제 현장법사를 삶으려 한다.

급해진 손오공, '우리 스승님 손대지 마라! 인삼과 나무 되살려내면 될 거 아니냐!'

진원대선 코웃음을 친다. '이게 그리 쉽게 살릴 수 있는 나무인 줄 아느냐? 네가 만일 되살려낸다면 너와 의형제를 맺으마.'

그래서 현장법사를 비롯한 나머지 인질로 남고, 손오공 홀로 인삼과 살리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닌다.

우선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봉래산(蓬萊山)에 들려 수성(壽星), 복성(福星), 녹성(祿星) 세 신선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니 세 신선 펄쩍 뛴다.

어쩌자고 그 귀한 나무를 뽑아버렸소. 그 나무는 우리도 살릴 길이 없구려. 방장산(方丈山)을 찾아가 동화제군(東華帝君 ; 남자 신선들의 수장인 신선)을 만난다. 그렇지만 동화제군도 난색~ 나에게 구전태을환단(九轉太乙還丹)이란 신묘한 약이 있지만 그 나무는 살릴 수가 없다오. 마지막 삼신산인 영주산(瀛洲山)으로 달려가지만 모든 신선들 고개를 홰홰 젓는다.

어쩌다 그 나무를 뽑았단 말이요. 우리도 그건 어쩔 수 없소.

'에고! 이제 어쩐단 말이냐, 큰 소리 치고 왔는데' 하고 둘레둘레 하다 보니 어느새 관세음보살 계신 보타낙가산에 와 버렸네. 급하면 역시 보살님뿐이지. 여차 저차 사정을 아뢰니 관세음 보살님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쩌자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사정이 급하면 나를 찾아와야지. 어찌 쓸데없는 곳만 돌아다녔단 말이냐!'

손오공, 야단맞는 가운데도 귀가 번쩍 뜨인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나무 살릴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 이 못된 원숭이야! 이 정병(淨甁)에 담긴 감로수(甘露水)라면 될게다. 예전에 태상노군과 내기를 했었는데 그가 단약 굽는 화로에 넣고 불때어 말려버린 버들가지를 이 정병에 꽂아 두었더니 되살아난 적도 있으니까. 뽑혀 넘어진 나무는 문제없을게다.'

역시 일급 구원투수, 특급 소방수 관세음 보살님. 부랴부랴 모시고 오장관으로 달려온다. 버들가지로 감로수 찍어 손오공 손바닥에 부적을 그리곤 나무뿌리 아래 손바닥을 대고 기다리니 펑펑~ 맑은 샘물 솟아나네. 쓰러진 나무 일으켜 세우고 그 맑은 물 골고루 뿌리니 죽었던 나무 소생하고, 인삼과까지 주렁주렁~우와~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관세음보살 왕림하시고 나무까지 온전히 소생하니 재앙이 변하여 경사가 되었네.

경사난 기념으로 보살님을 비롯하여 모인 회중에게 인삼과 하나씩 드려 드시게 하니 경사 중에 또 경사로구나.

또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던가? 아이들은 아니지만 손오공과 진원대선 약속대로 의형제를 맺었네. 그런데 다 좋은 가운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일~ 인삼과 먹은 현장법사의 몸이야말로 요괴들에겐 둘도 없는 보약이라. 욕심에 눈이 벌개진 요괴들 계속 달려들 테니 현장법사 좀 피곤해지겠네.

시공간, 체험따라 의미 틀려
삶의 고(苦), 다르게 보면
삶의 목표로 다시 다가와
초연한 사고와 수행 자세 필요

자, 이제 큰 사건을 일으킨 손오공이 어떻게 사건을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네요. 물론 손오공 성미에 쉽게 잘못 인정하고 머리 숙일 리야 없겠지요. 술법을 써서 살그머니 빠져 나오고 또 열심히 달아나지요. 그리곤 하늘세상에서 강의 마치고 돌아온 진원대선의 추격을 받아 잡혀오는 이야기……. 위에 쓰인 거 잘 읽어 보셨지요? 그런데 진원대선의 술법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수리건곤(袖裏乾坤)이라, 소맷자락 속에 하늘땅을 담는다는 뜻이겠지요? 여러 무협소설이라든가 신비한 이야기 속에 종종 등장하는 술법입니다. 여기 서유기에선 진원대선의 장기로 등장하네요. 진원대선은 어떤 존재였던가요? 세상과 더불어 아득한 시원에서부터 있던 존재, 신선들의 조상쯤 되는 분이지요. 그런 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세상은 정말 작고도 좁은 세계 아닐까요? 그러니 그 세계 소맷자락 속에 휘익 쓸어 담을 수 있는 신통한 재주를 지닐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이야기 열심히 했었지요? 여기서는 공간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군요.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 또한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체험 속에서도 가끔 생생하게 느껴져 오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초등학교 시절의 그 넓게 여겨지던 운동장이 이리도 좁았던가를, 절절하게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그리도 높게 여겨지던 산이 저렇게 낮았던가 하는, 그리도 먼 거리에 있던 것 같던 것이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경한 느낌을 가져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공간 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존재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단지 느낌이 아니지요. 크다 작다는 것은 상대적이니까, 작은 존재에게는 큰 것이 큰 존재에게는 작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개미에게 넓고도 큰 공간이 사람에게도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로 진원대선과 같은 위대한 존재에게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 정도는 소매 속에 휙 쓸어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대구(對句)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소매 속 하늘땅이 크기도 하고, 표주박 속의 세월이 길기도 하여라"(袖裏乾坤大, 壺中日月長)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혹시 소매 속의 세상은 아닐까? 또 표주박 속에서 애증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나요? 그런 세상을 넘어서 훌쩍 날아오르고 싶은 꿈을 꾸신 적은 없나요? 터무니없는, 영양가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비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시민적인 삶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초연한 자세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삶을 덧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중하기에 오히려 그 의미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손오공이 기가 막혀'를 시작하면서 삼쾌선생이 멋들어지게 읊조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풍속이러니~" 무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 잠시 머물다가는, 큰 바다 속의 좁쌀과 같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하염없이 싫증내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불퇴전의 자세…….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요. 하하. 자기 얼굴에 너무 금칠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걸 불교 집안에서는 개금불사라고 한다구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잘난 제 모습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개금불사라고 하시는 님의 마음이 문제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완전 구제불능의 자아도취증으로 몰리겠군요. 그렇지만 잘난 진면목을 계속 드러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삼쾌선생! 다음 시간에 그런 삼쾌선생의 노력을 살펴 주십시오!